

반복측정 자료를 활용한 상담성과 지속성 분석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은영¹, 윤소정^{2*}, 주자현¹, 장재영¹, 김소희¹, 서예나¹
¹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²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Analysis of Counseling Outcomes' Persistence Using Repeated Measures Data : Focus on Ulsan-si Nam-gu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Eun-Young Lee¹, So Jung Yune^{2*}, Ja-Hyun Ju¹,
Jae-Young Jang¹, So-Hee Kim¹, Ye-Na Seo¹

¹Ulsan Nam-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²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요약 COVID19 팬데믹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난 10년간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상담 성과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전과 상담후, 그리고 추수에 CYS-Net 검사를 받은 85명이었다. 연구도구는 CYS-Net 효과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호소문제는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토픽모델링과 신뢰할 수 있는 변화지수,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호소문제의 주제는 '정신 건강', '가족과의 갈등', '일탈과 비행'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후 어려움의 정도가 낮아졌으며, 이러한 상담 효과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 성과 분석 결과는 이후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fter two years of the COVID-19 pandemic, mental healt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and services to promote national mental health are being provided in various ways by each provinc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counseling continuously increases. In this study, the persistence and reliability of counseling outcomes were investigated, focusing on those who received counseling over the past 10 years at the Ulsan Nam-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individual-counseling program at the center and who responded to the CYS-Net test to measure counseling performance three times (pre-, post-, and follow-up-counseling). A questionnaire on major problems at the time of consultation and during the CYS-Net test was comple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topic modeling, repeated measures ANOVA, and a reliable change index. As a result, the main problem topics were mental health, conflict with family, and deviation and delinquency. After counseling, the degree of difficulty decreased, and the effect of counseling was found to be lasting. These conclusions come from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ounseling program of the youth counseling center,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counseling program in the future.

Keywords : Counseling Outcomes, Repeated Measures ANOVA, Reliable Change Index, CYS-Net, Counselling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 Jung Yune(Pusan Univ.)

email: cc139@pusan.ac.kr

Received October 20,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November 29,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올라온 상담을 요청한 숫자는 2.5배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에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1],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시행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의 활성화만이 강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일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중 개인 상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고 한다.

울산시 남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학업, 가족, 진로결정 등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울산시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위기 청소년의 사전예방과 사후개입에 이르는 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일대일 개인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수가 4,466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의 실제적 성과(outcome)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상담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담자의 책무성과 상담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질 향상에 영향을 주며[2], 상담자와 상담체계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담 성과는 상담 회기 중에 나타난 내담자의 즉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상담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긍정적 변화를 말한다[3]. 일반적으로 상담의 성과는 즉시적 성과, 중개적 성과, 최종 성과로 구분되나[4], 상담 종결 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상담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상담의 목적 달성 정도를 질문지로 물어 상담의 효과 또는 효용성을 밝히는 것으로[6], 주로 개인 내면,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 수행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7].

개인 내면의 변화는 내담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증세의 완화나 자존감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행동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변화이다.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는 내담자가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며,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결혼생활의 만족감이 증진되거나 좀 더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 수행은 사회에서 내담자가 책임감 있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직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줄여나가는 것을 포함한다[8]. 상담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변화는 복잡하며, 상담실제에서 내담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성과 측정은 다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9]. 그러므로 상담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성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 예로,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그리고 추수의 3시점에서 각각 행복감과 생애만족, 정신건강, 희망,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고 결과 낙관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는 추수검사에서 우울과 불안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났으며[11], 자기성장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12]에서는 135편의 논문에서 추수 평가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효과크기는 1.68이었으며,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경우는 0.95의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연구에서 상담의 지속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성 연구[13]에서는 우울증에서의 심리적 증후와 우울증 총점, 사회적 지지에서 정보적 지지에 대한 지각, 자살생각 등에서는 성과의 지속성을 보이나, 생활스트레스 영역의 건강/애착상실과 생활스트레스 총점, 무망감 등에서의 효과성은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약화되었거나 또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상담 성과의 지속성을 일반화하여 결론내리기 힘들며, 상담의 목적과 성과 측정을 위한 연구 설계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집단상담의 효과 지속성은 일부 다루었으나, 개인상담의 성과 지속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상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시점에서 개인상담의 성과와 그 지속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 내담자를 중심으로 측정 시기별로 반복측정한 상담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상담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담의 성과가 신뢰로운 수준의 변화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으로 토대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개인 상담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개인 상담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1-2020년에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 중 3개월간 3회기 이상 개인 상담을 받고 상담전과 상담후, 그리고 추수검사로 CYS-Net(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효과성 검사에 응답한 내담자를 임의표집하여 1차 선발하였다. 그 후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8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추수 검사는 2021년 4~5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연령별로는 14-19세 사이가 45명(52.9%), 20-25세 사이가 40명(47.1%)이었으며, 남성이 37명(43.5%)이었으며, 여성은 48명(56.5%)이었다.

Table 1. Gender and age of study participants

Gender & Age		Respondents	Percentage
Male	14-19	22	59.5
	20-25	15	40.5
	total	37	100.0
Female	14-19	23	47.9
	20-25	25	52.1
	total	48	100.0
Total	14-19	45	52.9
	20-25	40	47.1
	total	85	100.0

2.2 도구

상담성과의 지속성 분석에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된 CYS-Net 효과성 척도[14]를 사용하였다. 상담 성과는 개인 내면, 대

인관계, 사회적 역할 수행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주로 분석되나[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CYS-Net 효과성 척도의 총점으로부터 분석하였다. CYS-Net 효과성 척도는 총 8개의 하위 측정요인별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내적심리위기 영역은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의 3개요인, 부정적 대인관계 영역은 또래관계, 부모관계, 교사관계의 3개요인, 사회부적응 영역은 가정적응, 학교적응 총 2개 요인으로 24문항과 전반적 어려움을 묻는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된다. CYS-Net 효과성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인 문제와 기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CYS-Net 효과성 척도는 CYS-Net 서비스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42였다. 그리고 상담 당시 주 호소문제가 무엇이었던지를 개조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분석

첫째, 내담자의 주요 호소 문제가 무엇이었던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 연결망 프로그램인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AD)을 실시하였으며, TF-IDF Threshold 값은 0.5, Word length는 2로 하여 흔히 사용된 단어와 1~2글자 단어는 제거하였다. LAD의 alpha는 0.1, beta는 0.01로 하였다. 토픽의 수는 해석상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로 하였으며, 토픽-단어 네트워크 맵에서 표시할 토픽별 주요 단어 수는 5개로 하였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지수(Reliable Change, RC)[16]를 측정하였다. RC를 계산하기 위하여 85개의 상담사례별로 사후 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후, 긍정적인 변화를 양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값의 +, - 부호를 반대로 변경하고 Sdiff 값으로 나누어 RC 값을 도출하였다. RC의 값은 측정의 표준오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1.96보다 큰 RC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상담 성과의 지속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수의 반복측정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과 성별과 연령의 이원배치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2-way ANOVA)을 통해 상담 성과가 지속되는 지를 알아보았다. 반복측정에서 요구되는 측정값의 분산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형성가정으로 검증하였다[15].

$$RC = \frac{X_2 - X_1}{S_{diff}}, S_{diff} = \sqrt{2(S_E)^2}, S_E = S_1 \sqrt{1 - r_{XX}}$$

[주] X₁: pre-test total score mean, X₂: post-test total score mean, S_{diff}: standard error between X₁ and X₂, S_i: standard deviation of pre-score, r_{XX}: reliability of measurement

Fig. 1. Reliable change formula [16]

3. 결과

3.1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

토픽 모델링으로 상담 받을 당시의 주 호소문제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 토픽은 3가지로 토픽 1은 '정신 건강', 토픽 2는 '가족과의 갈등', 토픽 3은 '일탈과 비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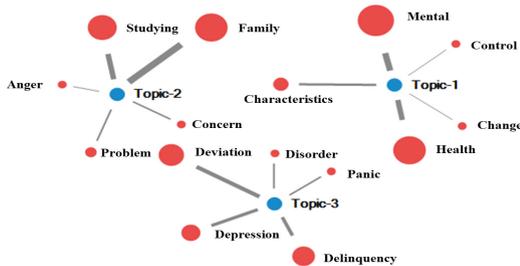


Fig. 2. Key words network in topics

Table 2. Major counselling issues' latent topics by topic modeling

Topic	Key Word				
	1st	2nd	3rd	4th	5th
Topic-1 Mental health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Control	Change
Topic-2 Conflict with family	Family	Studying	Problem	Anger	Concern
Topic-3 Deviation and delinquency	Deviation	Delinque-ncy	Depress-ion	Panic	Disor-der

3.2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지수(Reliable Change, RC)의 변화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지수 공식(Fig. 1)에 따라 값을 도출한 결과, 85개의 상담사례 중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내는 RC 지수가 1.96을 넘은 사례는 사전-사후 검사에서는 49명(57.6%)이었으며, 사후-추수 간에는 21명(24.7%), 사전과 추수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보인 경우는 51명(60.0%)이었다. 즉, 상담을 받은 후 57.6%가, 상담후 추수검사까지에서는 24.7%가, 그리고 상담전과 비교하여 추수검사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60%의 내담자가 더 이상 역기능적인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며, 상담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Frequency of reliable change occurred

Case	Pre-Post	Post - Follow up	Pre - Follow up
Reliable change	49(57.6%)	21(24.7%)	51(60.0%)

3.3 상담성과의 지속성

1) CYS-Net 전체 점수의 변화

상담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추수에 효과성 평가 검사의 전체 점수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Huynh-Feldt가 1.00으로 나타나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592$). 사전-사후-추수 검사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검사간의 의미 있는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F=99.95, p<.001$). 사전검사($M=75.22, SD=27.73$)에 비해 추수검사($M=51.69, SD=25.75$) 점수가 낮았으며, 추수검사 점수($M=51.69, SD=25.75$)는 사후검사 점수($M=42.91, SD=18.7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Pre-post-follow up test scores of CYS-Net by gender and age

Test	Gender	Age	n	M	SD
Pre	Male	14-19	22	70.77	31.70
		20-25	15	81.07	33.22
		Total	37	74.95	32.27
	Female	14-19	23	79.48	23.05
		20-25	25	71.72	24.75
		Total	48	75.44	24.02
Total	14-19	45	75.22	27.65	
	20-25	40	75.23	28.18	
	Total	85	75.22	27.73	
Post	Male	14-19	22	39.59	15.74
		20-25	15	43.80	20.37

추수	Total	Total	37	41.30	17.61	
		Female	14-19	23	45.30	20.71
		20-25	25	43.08	16.82	
	Total	Total	48	44.15	18.61	
		Female	14-19	45	42.51	18.47
		20-25	40	43.35	17.98	
	Total	Total	85	42.91	18.13	
		Male	14-19	22	42.95	20.57
			20-25	15	50.80	26.31
Total	37		46.14	23.05		
Female	14-19	23	60.04	31.32		
	20-25	25	52.24	22.57		
	Total	48	55.98	27.11		
Total	14-19	45	51.69	27.69		
	20-25	40	51.70	23.72		
	Total	85	51.69	25.75		

Table 5. Repeated measures ANOVA of pre-post-follow up CYS-Net test

Test	M	SD	N	SS	df	MS	F	p	post-hoc
1.Pre	75.22	27.73	85	47466.74	1.98	24030.93	59.27	.000	1>3>2
2.Post	42.91	18.13	85						
3.Follow-up	51.69	25.75	85						

wilks' λ = .436, *F* = 53.89,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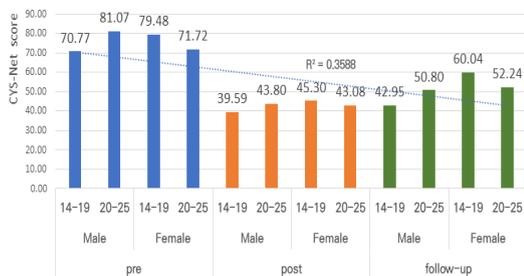


Fig. 3. CYS-Net score change

2) 어려움 정도의 변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표시하도록 한 점수의 사전-사후-추수의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Huyhn-Feldt가 .966으로 나타나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84$). 사전-사후-추수 검사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검사간 의미 있는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F=79.53, p<.001$). 사전검사($M=6.08, SD=1.99$)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M=3.00, SD=1.75$)가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전, 사후 검사 점수는 추수 검사 점수와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Pre-post-follow up test scores of difficulty scores by gender and age

Test	Gender	Age	n	M	SD
Pre	M	14-19	22	5.91	2.14
		20-25	15	6.20	2.18
		총계	37	6.03	2.13
	F	14-19	23	6.39	1.44
		20-25	25	5.88	2.24
		총계	48	6.12	1.90
	Total	14-19	45	6.16	1.81
		20-25	40	6.00	2.20
		총계	85	6.08	1.99
Post	M	14-19	22	2.59	1.87
		20-25	15	2.87	1.68
		총계	37	2.70	1.78
	F	14-19	23	3.39	1.80
		20-25	25	3.08	1.66
		총계	48	3.23	1.72
	Total	14-19	45	3.00	1.86
		20-25	40	3.00	1.65
		총계	85	3.00	1.75
Follow-up	M	14-19	22	2.73	2.21
		20-25	15	3.20	2.60
		총계	37	2.92	2.35
	F	14-19	23	3.57	2.31
		20-25	25	3.72	2.51
		총계	48	3.65	2.39
	Total	14-19	45	3.16	2.28
		20-25	40	3.53	2.52
		총계	85	3.33	2.39

Table 7. Repeated measures ANOVA of pre-post-follow up in difficulty scores

Test	M	SD	N	SS	df	MS	F	p	post-hoc
Pre	6.08	1.99	85	487.00	2	243.50	79.53	.000	사전>사후
Post	3.00	1.75	85						
Follow-up	3.33	2.39	85						

wilks' λ = .293, *F* = 99.95,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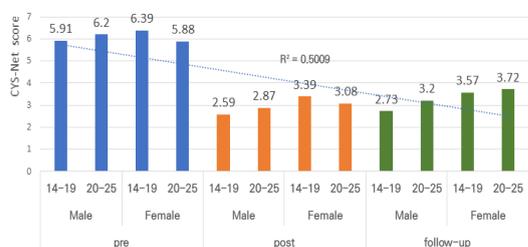


Fig. 4. Difficulty change in CYS-Net

4. 결론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상담성과의 지속성을 알아보았다. 첫째,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는 ‘일탈과 비행’, ‘정신적 문제’, ‘가족과의 갈등’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는 분류 체계인 개인내면,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수행과 유사하게 나타났다[7]. 즉, 이후 상담의 주요 호소문제를 분류하거나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대인, 사회적 영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담 효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분석한 결과 상담전과 상담 후 57.6%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과 추수 간에는 60%가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개인상담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셋째, CYS-NET 효과성 척도를 이용하여 상담 성과의 지속성을 사전-사후-추수 검사의 점수 변화로 알아본 결과, 사전)추수)사후의 순으로 점수 차가 나타났다. 즉, 상담으로 인해 상담 전에 느꼈던 문제는 상담이 종결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 상담 전에 비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를 1-10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상담은 실제로 내담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에 신뢰할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성과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난 10년간 개인, 대인,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의 성과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으며,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구 상담센터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성과 분석 체제를 통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난 10년간의 상담 성과를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담의 사전-사후-추수에 CYS-Net 검사를 받은 내담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표집의 한계로 인해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나 상담의 회기, 상담 종결 시기 등의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한계점이 있다. 둘째, 상담성과 해석은 상담의 목적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자기 성장이나 개발을 위한 목적의 상담과는 달리 심리적인 문제의 심각도가 높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악화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상담성과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성과를 사전-사후-추수의 점수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을 때에만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 해석시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의 주요 호소문제, 상담 회기, 종결 시기, 그리고 상담 호소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상담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 성과와 성과의 지속성은 모든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개별 호소 문제와 상담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의 주요 호소문제와 목표에 따라 상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상담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ing a leap forward as a leading nation by restoring daily life and realizing inclusive welfare work plans report",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1-41, Jan. 20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31
- [2] N. H. Sohn, S. K. Yoo, "A Validity Study on Outcome Questionnaire-30 (OQ-30) with Korean Cli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1, pp.1-15. Dec. 2012. DOI: <http://dx.doi.org/10.15703/kjc.13.1.201202.1>
- [3] G. H. Kim,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Hakjisa Publishers, 2000, pp.1-486.
- [4] L. S. Greenberg,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4, No.1, pp.4-9.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4.1.4>
- [5] M. S. Jung, J. J. Kim, "The Relationship of Male Counselor's Restricted Emotionality, Empathy Ability, Client's Working Alliance and Satisfaction of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1, pp.711-729. Feb.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1.201302.711>
- [6] J. Y. Yang, "Counselors' and Clients' perception of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Focuses on Novice counselor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pp.1-95, 2014

- [7] M. J. Lambert, C. E. Hill, Assessing psychotherapy outcomes and processes. In A. E. Bergin,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John Wiley & Sons Publisher, pp. 72-113, 1994.
- [8] C. E. Hill, K. M. O'Brien,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shers, 1999, pp. 401.
- [9] M. J. Lambert, E. J. Hawkins, "Measuring Outcome in Professional Practice: Considerations in Selecting and Using Brief Outcome Instrum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35, No.5, pp.492-499. Oct. 2004.
DOI: <http://dx.doi.org/10.1037/0735-7028.35.5.492>
- [10] J. K. Tak, G. Lim, J. Chung, "The effects of group coaching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o enhanc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3, No.1, pp.139-166. Jan. 2014.
UCI: G704-001037.2014.33.1.006
- [11] E. H. Lee, G. H. Y, C. S. Lee,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intervention in reduc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primary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5, No.2, pp.341-360, May 2006.
UCI: G704-000007.2006.25.2.005
- [12] H. T. Kim, Y. M. Baek, "A Meta-Analysis on the Efficacy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3, 965-978, July 2007.
DOI: <http://dx.doi.org/10.15703/kjc.8.3.200709.965>
- [13] W. G. Choi, C. K. Kim, S. Y. Lee, "Effectivenes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and suicide though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6, No.1, pp.75-91. Mar. 2005.
UCI: G704-001281.2005.6.1.003
- [14] S. D. Roh, J. W. Jeong, D. I. Kim, T. S. Kim, M. H. Lee, CYS-Net Effectiveness Scale Revision Study. Youth Counseling Issue Research Report,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Korea, pp.1-194. 2016.
https://www.kyci.or.kr/fileup/lib_pdf/2016-124.pdf
- [15] T. J. Sung,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AMOS From descriptive statistics to structural equation models*, Hakjisa Publishers, 2007, pp.1-439.
- [16] N. S. Jacobson, P. Truax, "Clinical significance: a statistical approach to defining meaningful change in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9, No.1, pp.12-19, Dec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9.1.12>

이 은 영(Eun-Young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1년 2월 ~ 2011년 4월 :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2011년 5월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윤 소 정(So Jung Yune)

[정회원]



- 2001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주 자 현(Ja-Hyun Ju)

[정회원]



- 2005년 2월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수료)
- 2005년 7월 ~ 2006년 3월 : 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 2006년 4월 ~ 2012년 6월 :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2012년 7월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장 재 영(Jae-Young Jang)

[정회원]



- 2017년 2월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육학석사)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간사
- 2013년 1월 ~ 2014년 12월 : 울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간사
- 2015년 1월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김 소 희(So-Hee Kim)

[정회원]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6년 6월 ~ 2016년 12월 : 대구스마트쉼센터 외부전문가
- 2017년 11월 ~ 2019년 1월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대체인력)

- 2019년 7월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서 예 나(Ye-Na Seo)

[정회원]



- 2015년 2월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정학석사)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좋은강안병원 발달의학센터 놀이치료사
- 2016년 4월 ~ 2020년 6월 : 울산시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2020년 6월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대체인력)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